

**육상인 윤리강령**  
**(KAAF Code of Ethics)**

2018. 11.

**(사)대한육상연맹**

# 육상인 윤리강령

대한육상연맹 제정 2005. 1. 12

대한육상연맹 개정 2018. 11. 21

## I. 전 문(前文)

육상인은

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육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고,  
육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육 진흥에  
이바지해 나가야 한다.

육상인은 이러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 
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을 재인식하고,

다음의 『육상인 윤리강령』을  
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하여  
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.

## 2. 육상인 윤리강령

- 대한민국의 모든 육상인(이하'육상인'이라 칭함)은  
제(諸)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, 스스로 명예와 품위를 지켜  
대한민국 육상계의 선도자(先導者)로서  
국민으로부터 신망(信望)을 얻는 체육인이 되어야 한다.
- 육상인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,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 
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.  
이와 함께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,  
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.
- 육상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 
취하여서는 안되며, 준법(遵法)과 청렴(淸廉)의 의무를 준수한다.
- 육상인은 선·후배와 동료의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로서 대하며,

상대방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.  
아울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.

- 1 -

- 육상 지도자는 자신의 품성과 언행이 선수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, 선수에게 사랑과 봉사로서 헌신하여야 한다.
- 육상 선수는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경기에 임할 뿐 아니라, 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.  
아울러 경기에 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의해 정정당당히 겨루어 선배들이 이어 온 전통을 계승·발전시켜 나간다
- 공인 심판은 경기장의 질서를 경기의 기록 결과 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며, 경기 진행 관리와 심판 질서에 이르기까지 경기장 내의 모든 사항들을 솔선수범하고 지도함으로써 경기장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- 육상인은 상생(相生)의 정신으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다른 경기단체와 체육계의 귀감(龜鑑)이 되어야 하며,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에 변화의 주체로서 자기계발에 힘쓴다.

### 3. 윤리강령의 적용

- 『육상인 윤리강령』은 '대한민국의 모든 육상인(육상원로, 공인심판, 지도자, 선수, 대한육상연맹 임직원을 비롯한 산하연맹, 각 시도육상연맹의 임직원 포함)'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- 육상인은 대한육상연맹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-끝-